

신안 해저 발견 주석제품의 성분 조성

유혜선 | 309호 신안해저문화재실 | 18:00~18:30

신안 해저에서 인양된 금속품은 1,000여 점에 달하며 금속정, 무기, 생활용기 등 그 종류도 다양하다. 이 금속품들은 청동, 황동, 주석, 납 등으로 만들어졌는데, 특히 은제로 생각되던 금속품 대부분의 재질이 주석으로 밝혀진 사실이 흥미롭다.

주석은 무르고 값이 비싸기 때문에 단독으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대부분이 합금과 화합물의 제조에 사용된다. 주석을 납과 합금시키면 더 단단해진다. 이런 합금을 ‘땀납’ 또는 ‘백랍(白鑠)’이라 하며 팔찌 등 장식용으로 사용하였다. 로마시대에는 납을 20~30% 첨가하여 은빛의 그릇을 만들어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주석과 납의 비율에 따라서 로마 백랍(Roman pewter), 장식용 백랍(Ornamental pewter)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현대에도 주석과 납의 함유량에 따라 백랍의 종류를 세분한다. 일반 백랍은 대략 Sn85~95% 와 Pb5~15% 정도가 합금된 것이고, 장식용 백랍은 Sn80% 와 Pb20%, 로마 백랍은 Sn70% 와 Pb30% 가 합금된 경우를 말한다.

신안해저선에서 발견된 주석 제품은 고순도(高純度)의 주석정(朱錫錠)을 비롯해서 등잔, 촛대, 향로, 쟁반과 같은 생활용기 등 다양하다.



그림 1. 촛대



그림 2. 주석정朱錫錠

제533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17년 3월 15일)

신라 무덤에서 나온 고구려 청동 그릇 -광개토대왕명호우-

최장열 | 105호 고구려실 | 18:00~18:30

1946년 5월 국립박물관은 우리 손으로 첫 발굴조사를 시작하였다. 대상은 경주시내의 돌무지덧널무덤[積石木槨墳]인 노서동 140호분이었다.

발굴 당시 봉분은 이미 결실되어 지표로부터 2m 내외로 남아 있었는데, 상부는 삭평되어 2채의 민가가 들어선 상태였다. 다행히 목곽木槨을 포함한 매장주체부는 전혀 교란되지 않았다. 발굴 결과 두 개의 봉분이 남북으로 잇대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남쪽의 무덤에서 고구려 광개토대왕명이 새겨진 호우壺杆가 출토되어 “호우총”이라는 명칭이 부여되었고, 북쪽의 무덤에서 은방울이 출토되어 “은령총銀鈴塚”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청동호우는 피장자의 머리 오른쪽에서 뚜껑이 덮인 채 바르게 놓여 있었다. 신라의 전형적인 돌무지덧널무덤에서 금속용기류는 피장자의 머리 쪽에 설치된 부장칸에서 발견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비해, 호우총에서는 피장자가 안치된 목관木棺의 내부에서 발견되어 이채롭다.



그림 1. 광개토대왕명호우와 바닥 명문

호우는 반구형의 몸체에 납작한 모양을 한 편반구형의 뚜껑으로 이루어졌다. 몸체는 높이 10.3cm, 입지름 22.9cm, 바닥지름 15cm, 몸체 최대 지름 23.8cm이고, 뚜껑은 높이 9.1cm, 입지름 22.8cm, 꼭지 높이 3cm로서, 지금까지 발견된 합盒 모양의 청동용기 가운데 비교적 큰 편에 속한다.

굽이 있는 바닥에는 4자 4행으로 이루어진 16자의 명문[乙卯年國置上廣開土地好太王壺杆+]과 상부 중앙에 “#”이 돌을새김 되어 있다. 서체는 광개토대왕릉비와 매우 흡사하다.

“國置土廣開土地好太王”이란 광개토대왕 사후死後의 호칭[諡號]이며, 을묘년은 일반적으로 광개토대왕릉을 만든 다음 해인 415년으로 보고 있다. 명문 말미의 “十”과 상부 중앙의 “#”에 대한 해석은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대체로 “을묘년에 국강상 광개토지호태왕(을 기념하기 위한/ 위한) 호우” 정도로 풀이될 수 있겠다. 광개토대왕을 장사 지낸 1년 뒤 왕릉에서 성대한 제사를 올리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닐까? 그런데 고구려에서 만든 그릇이 어떻게 신라 무덤에 묻히게 된 걸까?

호우가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415년은 신라 18대 실성왕 14년으로, 왕 자신도 내물왕 37년(392) 고구려에 볼모로 갔다가 내물왕 46년(401)에 신라로 돌아와 다음해 왕위에 올랐고, 실성왕 11년(412)에는 내물왕 아들 복호가 고구려에 볼모로 갔다가 눌지왕 2년(418)에 돌아왔다. 이와 같은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로 볼 때 고구려의 영주인 광개토대왕을 기념하는 물건이 신라에 보내질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하겠다.

다만, 호우총에서 출토된 여타 유물들은 신라 돌무지덧널무덤이 소멸되기 직전인 6세기 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청동호우는 5세기 초 고구려에서 제작되어 이후 제작시기와 가까운 시점에 경주로 반입되어졌고, 100여년의 전세 傳世 기간을 거쳐 무덤에 묻히게 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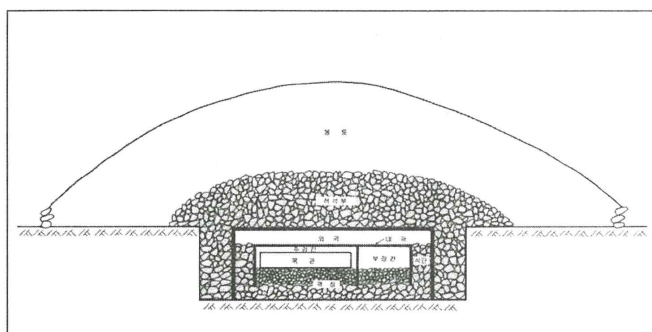


그림 2. 호우총의 동서단면 복원 모식도



그림 3. 호우총 유물 출토 위치

신안 해저선의 발견

김영미 | 309호 신안해저문화재실 | 19:00~19:30

1975년 8월 어느 날 전라남도 신안 앞 바다에서 한 어부가 끌어올린 그물에 청자꽃병 등 6점의 도자기가 올라왔다. 이를 계기로 중국 원나라(1271~1368) 침몰선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이듬해인 1976년부터 1984년까지 수중고고발굴과 함께 인양 작업이 이루어졌다. 해당 선박은 1323년 엄청난 수량의 무역품을 싣고 중국 경원慶元[지금의 Ningbo(寧波)] 항을 출발하여 일본 하카타[博多] 항으로 가던 중 신안 앞 바다에 침몰했다. 침몰 후 652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이 무역선을 우리는 ‘신안해저선’이라 부른다.

신안해저문화재는 발굴품이 2만 4천여 점, 압수한 도굴품 2천여 점으로 총 2만 6천여 점에 달한다. 종류별로는 도자기가 2만여 점, 동전이 28톤에 달하며, 이외에도 금속품 천여 점, 자단목 천여 점 및 다양한 목공예품, 향신료, 약재, 석제품, 유리제품, 골각제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신안선 발굴품 가운데 1만 2천 점에 달하는 용천요龍泉窯 청자가 가장 먼저 주목을 받았는데, 일괄 자료로는 세계 최다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종을 포괄하기 때문이었다.

신안선은 7개 격벽, 8개 선실을 갖춘 V자형 구조이며 최대 길이가 약 34m, 최대폭이 약 11m, 최대 깊이 약 3.7m, 중량 200톤급 이상이다. 가히 14세기 최대 무역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배의 하부 구조만이 남아있어 배의 상면 구조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돛대를 설치했던 자리로 보아 신안선의 주요 동력은 바람이었다. 100여 명은 태울 수 있는 규모이지만, 360여 개의 화물 꼬리표로 파악되는 인원 구성을 고려할 때 탑승자는 60명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안선에 상품을 처음 실은 때는 1323년 4월 22일이며, 마지막 선적은 6월 3일에 이루어졌다. 신안선은 경원에서 출항한 후 아마도 제주도 부근에서 폭풍을 만나 다도해까지 떠 내려와 침몰했을 것이다.



그림1. 신안해저선 복원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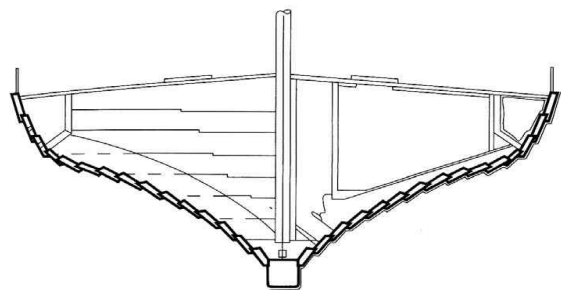


그림2. 신안해저선의 구조(침저형)

특별전 <이집트 보물전> (12)

- 이집트인과 고양이

이양수 | 기획전시실 | 19:00~19:30

고양이는 개보다 늦게 가축화가 되었지만, 이집트 문화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동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고양이 미라는 후기시대에 흔히 발견되고 있으며, 대략 두 종류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살쾡이(*Felis chaus*)이고 다른 하나는 아프리카 살쾡이(*Felis silvestris libyca*)인데, 그 중 아프리카 살쾡이가 선왕조 시대 때부터 계속 애완동물로 인기가 있던 종입니다. 집이나 곡물창고에서 쥐와 뱀을 잡는 고양이의 능력을 사람들은 높이 샀고, 이는 신화로 이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눈이 밝아 위험한 동물들을 물리치는 용맹함 덕분에 고양이는 중왕국 시대 마법 칼과 조각상에 자주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사자의 서>에서 태양신은 수고양이의 모습으로 독사 아포피스를 물리치기도 합니다. 고양이 무리와 함께 사냥을 하고 새 사냥을 하는 무덤 속 그림들은 상징적으로 이러한 신화적 사건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집에서 키워지는 애완동물로서의 면모와 모성적인 자질 덕분에 고양이는 바스테트(Bastet) 여신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바스테트 여신은 주로 고양이 혹은 고양이 머리를 가진 여성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원래는 사자의 머리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스테트는 제2왕조 때부터 모성애가 강한 어머니의 여신이면서 태양의 신인 ‘레’의 딸로 간주되었습니다. 다양한 화면에서 여성의 의자 아래 자주 그려지는 고양이들은 다산과 섹슈얼리티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러한 고양이의 신화적 상징성은 고양이의 털, 배변, 지방 등이 마법이나 약에 쓰였던 연유를 짐작하게 합니다. 바스테트 숭배는 제3중간기 시대 즈음에 인기가 많아졌는데, 그 신앙의 중심지인 부바스티스(Bubastis)는 이후 수많은 고양이 미라가 확인되는 곳입니다. 제22왕조 파라오의 이름인 파미유(Pamiw)는 ‘수고양이’라는 뜻일 정도로 고양이는 이집트인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림 1. 고양이 관